

19세기말-20세기초 대구 대암가 후손의 종손권 분쟁에 대한 고찰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경주 최씨 칠계 백불암과 중중
기탁 고문서를 중심으로-

최 기 척*

- I. 머리말
- II. 종손권의 의미와 분쟁의 배경
 - 1. 종손의 경제적 권리
 - 2. 종손의 사회·문화적 위상
 - 3. 종손권 분쟁의 배경
- III. 1871-1874년 승중문을 위배한 종손권 탈취 시도와 분쟁
- IV. 3대에 걸쳐 지속되는 소송전
 - 1. 1876-1893년 2차 종손권 분쟁
 - 2. 1935-1937년 토지분쟁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시사적 연구 방법을 통해 조선조 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대구 백불암가에서 발생한 종손권 분쟁 및 토지 소유권 분쟁을 사건의 전개에 따라 재구성한 것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백불암가의 자료 가운데 관련 문서 90점을 선별하여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문서는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 chuki1040@nate.com

所志가 27점, 通文이 16점, 牒呈이 3점, 關文·立案이 각 2점, 甘結·記事·完文·稟目이 각 1점, 기타 문서가 36점이다. 기타 문서의 경우 모두 1910년대 이후 발급된 토지소송과 관련된 근대기록물로 訴狀, 調書, 訴訟證據書類, 判決文 등이다. 백불암가는 조선 후기 대구지역의 유력가문으로 1616년 최동집이 칠계에 입향한 이래 백불암 최흥원과 지현 최효술이 학문을 완성하여 영남 퇴계학맥의 주류에 올랐다.

백불암의 부친인 최정석은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 요절한 형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유서에 따라 종사를 물려받았다. 또한 백불암의 동생인 최흥점을 죽은 장남의 양자로 삼아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은 200여 년 뒤 종지 간에 발생한 종손권 분쟁의 발단이 되었다. 요절한 장남의 제사를 지낸 양자의 후손과 승종을 하여 불천위 제사를 지내온 차남의 후손이 종손권 다툼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이들이 공동으로 모시는 조상의 묘가 소재한 종산의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주제어

백불암가, 종손권 분쟁, 토지분쟁,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소송

I. 머리말

이 연구는 미시사적 연구 방법을 통해 조선조 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대구 칠계 백불암가의 후손들과 초려공 최흥점의 후손인 최재현 집안 사이에서 종손권을 두고 벌어진 소송전을 비롯한 이와 관련하여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사건의 전개에 따라 재구성한 것으로, 백불암가에 내려온 자료에 근거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백불암가는 대암공 최동집을 입향조로 하는 대구 칠계의 경주 최씨 동성 집단으로 백불암 최흥원의 가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초려공 최흥점은 최흥원의 동생으로 대산 이상정이 지은 만사에서 백불암과 우애가 극진하였던 것으로 전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4년 한국국학진흥원의 고문헌 목록화 사업을 통해 발굴된 것으로 당시에 조사된 13,000여 점의 고문서 가운데 관련 자료 90점을 선별한 것이다. 이 중 所志가 27점, 通文이 16점, 牒呈이 3점, 關文·立案이 각 2점, 甘結·記事·完文·稟目이 각 1점, 기타 문서가 36점이다. 기타 문서의 경우 1910년대 이후 발급되어 대체로 토지소송과 관련된 문서로 소송 증거 서류가 10점, 선대의 소지 내용을 빼껴놓은 서류가 8점, 조서가 8점,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기록한 서류가 4점, 訴狀이 3점, 判決文이 3점 등이다.

백불암가는 조선후기 대구지역의 유력가문으로 조선의 개국공신인 광정공 최단을 파조로 하는 경주 최씨의 한 분파이다. 최단은 1388년 안동원수로서 요동정벌에 참여하여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1392년 조선이 개국되자 개국원종공신에 책록되었고, 1393년 태조가 위화도회군의 공신들에게 다시 포상하였을 때는 삼등공신의 10인 중 한 명으로 제수되었다.¹⁾ 손자인 최맹연이 관직에서 물러난 뒤 서울에서 대구 도동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광정공과 일원이 대구에 정착하게 되었다.²⁾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정공 8세손인 최계는 仲兄인 최인, 조카 최동보

1) 최언돈, 『옷골의 인물과 유적』, (주)아이앤피, 2016, 244~245쪽.

2) 최언돈, 앞의 책, 250~251쪽.

와 함께 팔공산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특히 창녕 화왕산 전투에서는 곽재우를 지원하는 전공을 세웠다. 최계는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공로로 선무이등공신으로 뽑혀 만경현령을 지냈으며,³⁾ 그의 차남인 대암공 최동집이 팔공산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칠계로 분가하여 백불암가의 입향조가 되었다.⁴⁾

최동집의 4세손인 최수학은 1691년 무과에 급제하여 광양현감을 지낸 인물로, 슬하에 아들 넷과 딸 하나를 두었으나 장남인 최인석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요절하자 承重文을 작성하여 차남인 최정석에게 종사를 잇도록 하였다.⁵⁾ 이때 최정석의 장남인 백불암 최홍원이 자연히 가문의 승종자가 되었으나, 한편 최홍원의 동생인 최홍점을 요절한 최인석의 양자로 삼아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훗날 최홍점의 7대 주손인 최재현이 백불암가의 종손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발단이 되었다.

1871년 최재현은 자신이 대암공의 종손임이 합당하다며 백불암의 7대 주손인 최시교를 중심으로 한 백불암가의 종중원들과 대립하였는데, 이를 시작으로 최시교 집안과 최재현 집안 사이의 분쟁은 3대에 걸쳐 지속되었다. 조선 후기 대암공의 종손이라는 위상은 가문에서는 물론이며 향촌 사회에서 경제적·문화적·상징적으로 매우 높았다. 선대인 백불암 최홍원과 지현 최효술이 학문을 완성하여 영남 퇴계학맥의 주류로서 활약하였고, 집안의 재산권이 종손에게 집중됨과 동시에 종중의 의결 권한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암공 종손 지위의 획득은 최재현 본인은 물론 후손들의 삶을 좌우하는 특권을 가질 기회였다. 탈종에 실패한 최재현이 얼마 뒤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인 최성규가 소송을 거듭 제기하여 사당의 신주를 탈취하고 선대에 새긴 유허비의 훼손을 시도하는 등 십수 년에 걸쳐 분란을 일으켰다. 이후 한동안 뜸하였던

3) 崔興遠, 『百弗庵集』 卷13, <六代祖考縣令府君墓碣>; 柳台佐, 『鶴棲集』 卷13, <三忠祠廟庭碑銘(并書)>.

4) 최언돈, 앞의 책, 298쪽.

5) 최언돈, 앞의 책, 321~323쪽.

분쟁은 1935년 최성규의 아들인 최장과 백불암가 종중이 선조의 묘가 있던 팔공산 도학동의 면적 7만여 평의 산의 소유권을 두고 대립하여 또다시 시작되었고, 2년 동안 소송을 지속한 끝에 최장이 승소하며 67년간의 모든 분쟁이 마무리 된다.

본고에서는 분쟁의 원인이 되는 종손권에 대한 이해와 분쟁의 발생 배경을 서두에서 제시한 뒤, 1871년 최재현과 최시교 사이에 대암공의 종손권을 두고 벌인 송사를 시작으로, 최재현이 죽은 뒤 그의 아들인 최성규가 또다시 종손권을 주장하며 일으킨 소송전을 소개하고,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최성규-최장 부자로 이어지는 백불암가 종중과의 토지 소유권 소송전을 소개하며 3대에 걸쳐 지속된 분쟁의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조 말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향촌 사회의 향론을 주도하였던 유력가문의 친족 간에 일어난 분쟁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조 명문가의 종손권에 대한 알력 다툼은 몇몇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수백 년간 온전히 유지되어 온 종사에 대하여 느닷없이 종지 간에 분란이 발생한 사건은 보기 드물다. 현전하는 자료의 내용에 기반하여 조선조 말기 동족 간에 종사를 두고 시작된 분쟁이 후대의 토지소송으로 이어져 일제의 신식 재판관을 치르기에 이르는 양상을 생생히 담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칠계 백불암가의 내력을 밝힌 연구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⁶⁾ 백불암가에 내려온 고문헌을 대상으로 서지학적으로 검토한 논문이 있다.⁷⁾ 또한 18세기 백불암가의 최수학-최정석 대에 일어난 송사를 미시사적으로 접근하여 집권 노

6) 김택규, 『웃골: 거대도시 속의 씨족마을』, 대구광역시, 1996, 1~517쪽.; 김광언 『百弗古宅』, 민속원, 2008, 1~490쪽.; 최언돈, 앞의 책, 1~553쪽.; 최언돈, 『웃골의 행장과 비문: 잃어버린 가치를 찾아서』, ㈜아이앤피, 2017, 1~523쪽.

7) 구본옥 『『大邱儒賢 通講錄』의 正字化와 해제』, 『퇴계학논집』 11,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 1~7쪽.; 최기척, 「백불암 종가 소장 주요 기록물의 서지적 분석: 백불암 최홍원 활동시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23.; 최기척, 「19세기 대구지역 강회 기록물의 서지적 분석 -지헌 최효술의 강학활동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97, 한국서지학회, 2024, 61~81쪽.

론의 영남 남인에 대한 통제가 존재하였음을 제시한 논문과,⁸⁾ 18세기 백불암 최홍원이 시행한 부인동동약과 관련된 사송문서를 대상으로 법제사적 검토를 진행한 연구가 있다.⁹⁾ 양반가의 종손권을 두고 일어난 분쟁에 대한 연구로서 문성공 율곡 이이 자손의 봉사자 선정과 관련하여 19세기에 일어난 분쟁과 신식의 재판, 현재의 상황 등을 소개한 논문이 있고,¹⁰⁾ 동래정씨 정난중 종가의 고문서 자료를 토대로 한말의 종가 입후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들을 사건의 전개에 따라 소개한 연구가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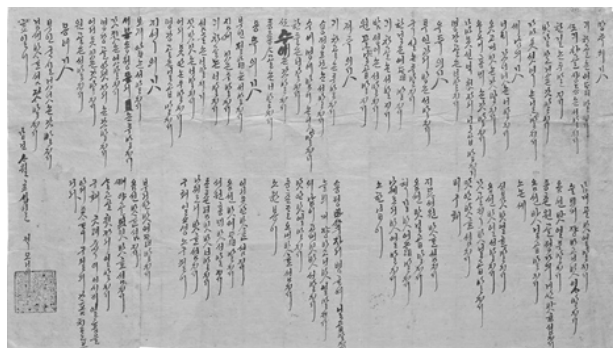
II. 종손권의 의미와 분쟁의 배경

1. 종손의 경제적 권리

조선 후기 대암가의 재산 규모는 대암가에 내려온 분제기를 비롯한 양안, 전답매매명문, 일기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손의 재산은 세대가 지날수록 분제를 통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나, 지주계급으로서의 경제적 기반을 꾸준히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입향조 최동집부터 백불암 최홍원 시대까지 200여 년의 6대에 이르는 재산 규모의 추이에 대하여 2017년 정진영이 백불암가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논문¹²⁾을 참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 8) 김동일, 「1713년 대구부 해동촌면 상송과 갈등의 연쇄: 옷골 경주 최씨 백불암 고문서의 미시사적 접근」, 『동방학지』 19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0, 119~145쪽.
 - 9) 김동일, 「조선후기 토지 공증체계와 사송문서 연구 -18세기 전반 대구 경주 최씨의 전답송 분석-」, 『역사와 현실』 122, 한국역사학회, 2021, 209~238쪽.
 - 10) 정금식, 「문성공 율곡 이이의 종손권 분쟁에 대한 고찰 -(조산)고등법원 1921.5.20. 선고 대정10년 민상제5호 및 1922.6.20. 선고 대정11년민상제184호 판결을 대상으로-」, 『법사학연구』 64, 한국법사학회, 2021, 43~92쪽.
 - 11) 허원영, 「한말 한 종가의 입후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들」, 『사회와 역사』 75, 한국사학회, 2007, 151~186쪽.

최동집의 재산 규모는 그의 부인 여강이씨가 1664년과 1678년에 적서 8남매에게 남긴 화회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재산은 전답이 1,500~1,600여 두락이 되며 노비는 18구로 영남의 재지사족 가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규모였다. 최동집의 장남인 최위남의 재산은 전답이 623두락과 노비가 22구에 이르는데, 모친인 여강이씨가 서자녀들에게도 별급을 통해 재산을 배분한 점은 이례적인 경우이나, 적자인 최위남이 그 남매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재산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최동집의 손자 최경함의 경우는 그 재산의 규모를 확인할 수 없으나, 부친인 최위남으로부터 받은 전답이 264두락, 노비가 6구로, 그의 누이들에 비해 4~5배 많은 양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최동집 처 여강이씨 서자녀 7남매 분제기(상측)와 적자 분제기(하측)

12) 정진영, 「부자들의 빈곤2-18세기 중반 영남 한 향촌 양반지주가의 경제생활」, 『대구사학』 129, 대구사학회, 2017, 269~308쪽.

대암가 4세손 최수학이 적서 4남 2녀에게 남긴 재산의 규모는 전답 712.5두락과 노비 48구이다. 최수학의 아들 최정석이 자녀들에게 남긴 재산은 전답 405두락과 노비 61구에 달하였다. 최정석의 장남인 최홍원의 경우 전답 67두락과 노비 12구로 그의 남매들과 비교하여 균등한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일찍 죽은 동생의 제사위 접답 29두락과 노비 4구를 자신이 관리하였고, 1733년 조부의 재산 분급에 전답 34두락과 노비 5구를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최홍원이 당시 166두락의 전답과 23구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재산의 규모는 처가의 분급을 제외한 통계이며 분재기가 모든 재산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와 다를 수 있다. 특히 최홍원의 일기에 기록된 토지를 취합한 규모는 200여 두락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 후기 대암가 종손의 재산 규모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최홍원 이후 시대의 대암가 재산 규모의 추이는 대암가의 경제 관련 기록물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최홍원으로부터 4세손인 최효술까지 종손이 모두 독자였던 점과 더불어 처가로부터의 분재, 조선 후기의 장자 우대상속 문화 등을 고려한다면 대암가의 종손이 지주계급으로서 경제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2. 종손의 사회·문화적 위상

대암가 종손의 사회·문화적 위상은 무형적 권위로서 대암 최동집으로부터 시작되어 백불암 최홍원이 성공적으로 시행한 부인동 동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동약은 구성원의 명부와 운영규약, 공유재산을 두고 시행되었다. 재지사족들은 자신들이 속한 동을 결속하여 朱子增損呂氏鄉約과 退溪栗谷鄉約을 참작하고 그들의 관심과 이해를 반영시킨 동약을 실시하였다. 17세기 이후 동성부락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며 종족적 기반 위에서 시행된 경우가 많았고, 18세기 이후에는 사족체제가 붕괴되어 감에 따라 비교적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인동 동약은 18세기에 시행된 대표적인 동약의 하나이다. 부인동은 대구 팔공산의 부인사 아래 소재한 중산리·부남리·무산리·근전리 등 4개 마을을 대표하여 만들어낸 洞名이다. 본 동약이 최홍원에 의해 주관되어 입향조부터 대대로 대암가를 중심으로 동약소를 만들어 운영한 것은 부인동 일대가 대암가의 영향력 아래 있었음을 나타낸다. 동약소는 양반 가운데 동약존을 선출하여 약직 이하의 임원을 임명하였고, 약직은 양반이나 中庶 중에서, 이정과 전곡은 하층민 중에서 임명하였다. 매년 봄과 가을에 동민을 강당에 모아 향약을 강론하였는데, 上廳과 下廳을 두어 양인과 천인이 구별을 두어 앉게 하였다. 또한 先公庫와 恤貧庫를 설치하여 선공고에서 田稅를 담당하고 홀빈고에서 賑恤과 부조를 담당케 하였다. 이러한 동약의 시행은 신분의 분화가 촉진되어가던 당시에 지배계층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이었고, 이를 통해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를 재편성할 수 있었다. 다음은 『정조실록』에 기록된 최홍원이 시행한 부인동 동약의 공로에 대한 칭송의 내용이다.

전 영남의 도백이 말하기를, ‘전 주부 최홍원은 행실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재물을 내어 빈궁한 사람을 구제하고, 집안에 先公後私의 창고를 두어 이웃 사람들이 조세부역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며, 또 향약으로 권장하고 가르친다.’고 하였다. 이왕 들었는데 어찌 등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¹³⁾

위의 내용을 통해 임금이 최홍원의 공덕을 인정하며 벼슬을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학식과 덕행을 인정받아 조정에 천거되는 것은 가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영남 유림의 師表가 되는 것이었다. 이후 최홍원의 아들과 손자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 그 뜻을 펼치지 못하였으나, 증손자인 최효술이 선대에 이룩한 공적을 바탕으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지역민의 교화에 힘쓰는 동시에 학문을 완성하여 수차례 조정

13) 『正祖實錄』 正祖 7年 2月 19日, “前嶺伯言前主簿崔興遠行誼不但有可稱捐財濟窮家有先公後私之庫隣里不知常賦又以鄉約勸誨之云既聞之後豈可不錄用”

에 천거되기도 하였다. 대암가는 최동집에 이어 최흥원, 최효술까지 3명의 장사를 배출하며 조선 후기 영남지역의 명문가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가게 된다.

3. 종손권 분쟁의 배경

조선 전기는 적장자가 자손 없이 사망할 경우 차자가 적장자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고 상속받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17세기 이후 종법 질서가 확립되며 차자의 아들 등을 적장자에게 入後하고, 그 양자를 적장으로 삼아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으며, 사위조 재산을 상속해주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18세기 초 최수학이 자신의 차자 최정석으로 하여금 승중케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로 인해 최수학이 유언을 남기고 승중문을 작성한 것이다. 최수학이 유언을 남긴 시기는 전라도 운봉으로 귀양을 떠나 세상을 떠나기 1개월 전이었다. 최수학이 승중문을 남기기에 앞서, 운봉으로 유배되어 생을 마감하게 된 배경으로 18세기 집권 노론 세력과 영남 남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1713년 최수학은 김동백이라는 자가 벌목하던 와중 최수학의 집으로 끌려가 장을 맞았다는 혐의로 김동백의 처 김조이에 의해 피소당하였다. 김동백 부부가 최수학을 관부에 고소한 핵심 쟁점을 정리하면, 최수학의 養山에서 벌목을 하던 김동백을 최수학의 집으로 잡아 와 족장을 친 점, 구운 기와로 이익을 나눈 점, 마을 사람들에게 땀감과 솜을 판 점, 제언의 물을 독점한 점 등 네 가지였다. 최수학은 원정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김동백이라는 자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고 붙어산 지 2, 3년에 불과하여 본인의 양산과 제언 축조 등의 일을 알 리가 만무하니 김동백을 피고 엄하게 추문하여 뒤에서 사주한 사람을 밝혀 간사한 형상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경상감사 이탄은 조정의 관료였던 최수학에게 함부로 형벌을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급히 장계를 올려 담당 관서에서 처벌해달라 요청하였고, 곧장 최수학은 전라도 운봉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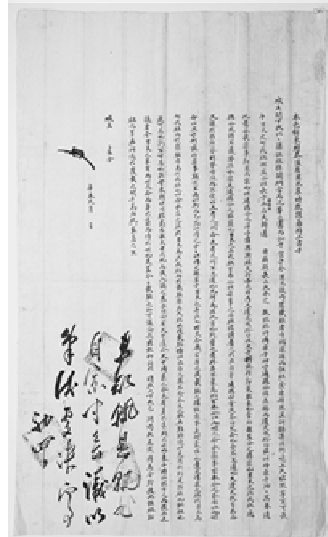
이후 최수학의 아들인 최정석의 私奴 만립이 근처 마을 중동리에 살던 채담령이라는 양반에게 조리돌림 당하여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그를 피해 도망가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최정석은 만립의 어머니 막금을 통해 소지를 올리게 된다. 더불어 최정석은 자신의 부친 최수학을 무고한 자가 바로 채담령의 부친 채지락이며, 채담령가가 본인의 가문을 해하려는 것은 마을의 상하가 모두 다 알고 있다며 호소하였다. 당시 경상감사 홍우령은 최수학이 운봉에 귀양을 간 것과 채가와와의 분쟁은 상관없이 없는 일인데 사변을 요청하는 일이 맞지 않다는 제사를 내렸고, 이후 상송은 흐지부지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진 최수학의 사건과 달리, 채담령의 경우 사건의 형태가 비슷하나 처벌이 흐지부지된 것에 대하여 사법 절차의 객관성과 엄정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당시 판결을 내린 대구판관 윤득인과 조정업, 경상감사 이탄과 홍우령 등은 모두 노론과 소론이었다. 채담령의 선조인 채선수는 백불암가의 입향조인 최동집과 한강 정구의 아래에서 동문수학한 사이인데, 채담령의 당색이 노론이나 소론으로 전향하였다는 심증이 생기는 부분이다. 조선 후기 서인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영남은 남인에서 노론으로 전향하는 인사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에 대한 남인들의 비판은 오히려 이들을 더욱더 몽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¹⁴⁾

최수학이 남긴 승중문은 사위인 이주승이 대리로 작성하고 문중 원로인 최수정의 공증 확인을 거친 것으로, 차남인 최정석을 주손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입향조 최동집의 불천위 봉사에 대한 유림의 인증을 받을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조선시대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선조나 입향조를 불천위로 모셔야 하였다. 불천위는 국가나 유림으로부터 그 업적이나 인품을 인정받아야 하였는데, 당시 최동집은 불천위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사대부 집안의 제사는 4대봉사가 관행이었기 때문에

14) 김동일은 2020년 「1713년 대구부 해동촌면 상송과 감동의 연쇄」라는 연구에서 최수학·최정석이 겪은 상송이 ‘남인을 위엄과 형벌로 겁을 주고,利害로써 함정에 빠뜨린다’는 민진원의 영남 노론화 전략에 잘 부합한다고 서술하였다.

최수학이 세상을 떠나면 장남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불천위가 영구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 당시의 관행에 따라 차남인 최정석의 장남 최흥원을 죽은 장남의 양자로 보내고자 하니 최흥원의 나이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들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이후 영남 유림의 수장이었던 대산 이상정은 <報本齋記>를 통해 최동집을 불천위로 봉사할만한 인물로 인정함과 동시에 조선시대 왕도 차남에게 왕좌를 넘긴 사례를 언급하며 둘째가 종손의 임무를 맡은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으니 의혹을 갖지 말라는 글을 남겼다.¹⁵⁾

Ⅲ. 1871~1874년 승중문을 위배한 종손권 탈취 시도와 분쟁



〈그림 2〉 1871년 崔崑敎가 大丘府에 올린 所志(좌측)와
1871년 崔旺 등이 大丘府에 올린 稟目(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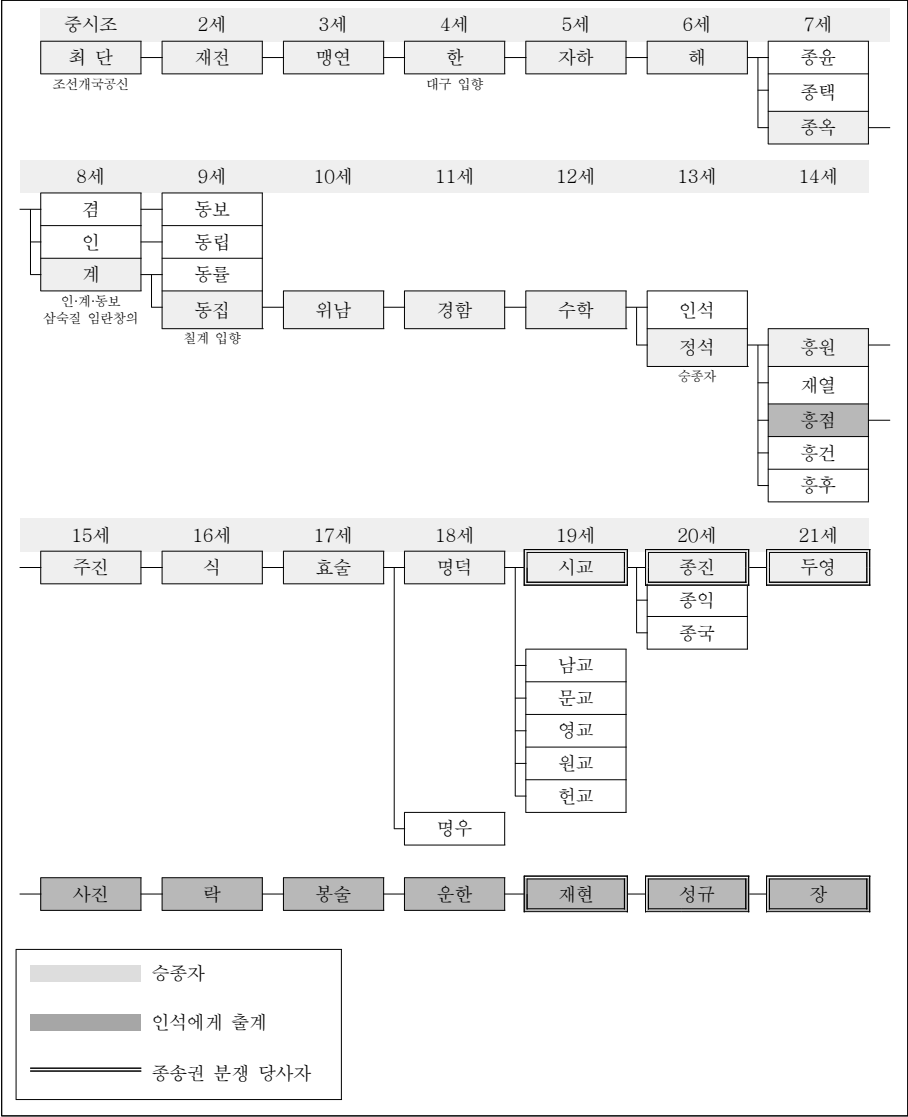
15) 최언돈, 앞의 책, 321~324쪽.

1871년 9월의 어느 날 해동촌 칠계에 거주하던 최시교가 대구부 성주에게 상서를 올렸다. 일가친척 중에 최재현이라는 자가 자칭 종손이라 하며 탈종을 시도하고 있으나 선대가 본인에게 전한 사실이 상세히 적힌 문서가 있으니 통촉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소지에 기재된 최시교의 선대가 전한 사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의 7대조인 현감공(수학)의 장자(인석)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중략) 현감공은 돌아가시기 전 차남인 통덕공(정석)에게 종사를 맡기시며 유서를 남기셨는데, 이제 너에게 종가의 제사를 맡기니 뜻을 받들어 나의 종사를 이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저의 집안입니다. 또한 통덕공의 차남인 최흥점에게는 요절한 아들의 후사를 이으라고 하시며 유서를 남기셨는데, 이를 따르는 것이 바로 최재현의 집안입니다. 당초에 현감공께서 종사를 물려주신 것은 저의 6대조 통덕공입니다. (후략)¹⁶⁾

최시교가 올린 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최시교와 최재현은 5대조에서 갈라진 집안사람이며, 그들의 5대조는 통덕공 최정석의 장남인 최흥원과 차남인 최흥점이다. 6대조 최정석의 형이 요절하자 7대조 현감공이 남긴 유서에 따라 차남이었던 최정석이 승종을 하였고, 최정석의 차남인 최흥점을 요절한 최정석의 형에게 양자로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이다. 최시교가 올린 상서에 대하여 성주는 누가 옳은지는 현재 알 수가 없으니 宗支와 회의하여 들은 다음에 판결하겠다고 밝혔다.(부록: 연번13) 한편 같은 달 최시교를 두둔한 최왕과 그 일가 70여 명이 최재현의 행패를 고한 품목에서도 대구부 성주의 제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재현의 7대조가 유서 2건을 남긴 것이 지금의 일을 염려한 것이라는 회답을 하였다.(부록: 연번62)

16) 「1871年 崔岾教 所志」, “罪人之七代祖縣監公以長子諱麟錫無后夭折遵…敎臨終時傳宗于仲子通德公諱鼎錫而遺文成給曰茲以歸宗于汝汝其奉遵此意承我宗事即罪民家也以通德公之仲子諱興漸繼夭折子之后而又遺文成給曰以次子例施行即載鉉家也當初縣監公之傳宗也罪民之六代祖通德公”



<그림3> 경주최씨 철계 대암가 세계도(파조 최단-종송권 분쟁 당사자)

1872년 1월 최왕과 그 일가가 대구부에 올린 소지 2건이 거듭 확인된다.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서원 철폐 명령을 내렸으나 백불암가는 서원을 서당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재현이 이 사실을 관부에 고발하자 백불암가에서 소지를 올린 것이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있고 나서는 동천서당이란 이름으로 선조를 받들고 있는데 최재현이 탈종을 도모하기 위해 동천서원이라 모함하오니 살펴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성주는 너희가 말하는 서당도 鄉賢의 사당이니 철폐해야 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거듭 상서를 올렸으나 성주는 이전의 결정을 따를 것이니 물리라 하였다.(부록: 연번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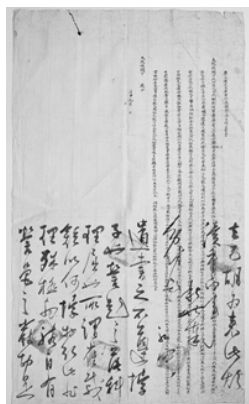


〈그림 4〉 1871년 11月 大邱儒林에서 최씨 문증으로 보낸 通文

최씨 가문의 분쟁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 곳곳에서 통문이 돌게 된다. 1871년 9월, 칠계 최씨 종계의 일은 최재현이 끝내 접지 않고 기망하고 있으니 한번 모여서 바르게 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孫과 朴이 작성한 회문이 영남 각지에 전달되었다.(부록: 연번46) 같은 해 10월 성주 지촌의 정씨문증으로부터 대구향교로 보내온 통문을 보면, 최재현이 가례에 선조를 따르라는 말을 돌아보지 않고 선조를 배반하여 자신의 형벌을 자초하니 귀향의 향원들은 그를 불러 깨우쳐주길 바란다고 하였다.(부록: 연번47) 11월 대구유림에서 칠계문증으로 보낸 통문에서는 귀택의 종사로 다투던 일이 바로잡혔고, 최재현도 초려공(최홍점)의 주손임에 틀림이 없으니 앞으로 한 집안에서 화목하여 다투는 일이 드

러나지 않게 해 달라고 전달한 내용으로 보아 당시 향론이 최재현의 소란에 대립하여 유의미한 반응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부록: 연번48)

그러나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진 통문의 내용은 대체로 최재현의 행태를 꾸짖으며 일이 속히 해결되기를 다시금 바라고 있다. 12월 20일 선산 향중의 길민각 외 60여 인은 대구 향중의 각 택에 통문을 보내며 칠계 최씨 종지의 투쟁은 여러 선배들의 말씀을 참고하여 신속히 결정하고 가문에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부록: 연번49) 이듬해 2월 22일 대구 유림 구정로 외 14인이 최씨 문중에 보낸 통문을 보면 귀문의 종지의 일은 백불암 문집에 있는 대로 하면 될 것인데 물의를 일으키니 시끄럽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전달하였다.(부록: 연번50) 같은 해 5월 밀양유생, 의성 김씨 산운문중, 의성향회중 등 3곳으로부터 최씨 문중에 보내온 통문은 모두 선조의 뜻을 배반한 해당자를 벌주어 종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부록: 연번52, 53, 54) 또한 5월 영천향교에서 대구향교로 통문을 보내었는데 칠계의 초려공의 손자 재현이 선조의 뜻을 배반하고 종계와 다투려는 마음이 생겨 자신의 선조도 감히 엄두를 못내던 분란을 일으키니 귀향에서는 책선의 도리로 삼강오륜을 바로 세우고 유풍을 진작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부록: 연번51)



<그림 5> 1872년 崔峇敎가 大院君 李昰應에게 올린 所志

1872년 9월 최시교는 영남유림의 향론에 힘입어 1871년과 동일한 내용의 소지를 흥선대원군에게 올렸다.(부록: 연번18) 최시교가 대구부에 올린 상서와 향론의 압박에도 최재현이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1872년 4월 최시교가 서울에서 최재현의 아들인 최성규를 고발하였고, 관청에서 최성규를 체포하여 심문한 사건을 기록한 문서가 남아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최시교는 소송을 위해 최소 6개월 전 대구에서 상경하여 머물다가 최성규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1873년 동부승지 이우영이 판서에게 전달한 입안에는 1872년 8월 최시교가 임금에 행차하는 때를 맞추어 징을 치며 억울함을 간절히 호소하였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부록: 연번41) 이에 임금이 예조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명한 것이다. 다음은 최시교가 흥선대원군에게 올린 상서의 내용 중 일부이다.

본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최재현의 7대조의 유서가 2본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제사를 받들라 하여 재현의 집안에 전하였고, 하나는 종파의 제사를 받들라 하여 시교의 집안에 전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너의 선조가 오늘날 이와 같은 패륜적인 후손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 유서를 남긴 것이리라. 재현을 종중으로부터 벌하고 징계하여 다시 이러한 폐단이 없게끔 하라” 운운하였고, 재현이 항변하여도 판결의 내용에 “자체로 너의 선조의 유서가 있으니 오직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어늘 지금 이렇게 운운함은 크게 온당치 못하다” 운운하였지만, 해당 재현이 오히려 뉘우칠 줄 모르고 고을 관청에서 패소한 것에 독기를 품어, 그 아들 성규로 하여금 서울에 출몰하게끔 하여 백방으로 해칠 것을 도모하였습니다. (후략)¹⁷⁾

위의 내용에 따르면 최재현이 대구부 성주에게 올린 상서의 판결 내용 일부를 언급하며 최재현이 판결을 따르지 않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9월 최시교가 대구부 성주에게 상서를 올렸을 때 관부에서 양측과 회의하여 들은 다음에 판결하겠다고 전한 뒤 결국 최시교

17) 「1893年 李石榮 立案」, “本府題內崔載鉉七代祖遺書有二本而一則曰以奉父祀傳之載鉉家一則曰承我宗祀傳于時教家以此見之汝矣先祖爲廬今日如此悖孫而有此書者也載鉉段自宗中罰懲更無此等之弊云云載鉉呈營題內自有汝矣祖遺書惟當遵守是去乙今此云云大不穩當云云而同載鉉猶不知悔毒見屈於營邑俠其子性奎出沒京洛百般謾害噫”

의 손을 들어주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11월 대구유림에서 칠계 문중으로 보내온 통문에서 귀택의 종사로 다투던 일이 바로잡혔으니 앞으로 화목하게 지내달라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즈음 판결이 내려졌으나 최재현이 항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그의 아들인 최성규를 동원하여 서울 길에 올랐던 최시교의 움직임을 방해하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

1872년 10월에는 해동촌 칠계에 거주하는 최원술, 최항술, 최명린 등 100여명이 성주에게 상서를 올렸다.(부록: 연번19) 여러 대에 걸쳐 종가에 종지의 송사가 전혀 없었는데 최재현이 선조를 배반하는 죄를 저질러 일족 간에 송사가 시작되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벌을 내려주기를 간청한다는 내용이었다. 관부에서는 선조의 유서가 양가에 전하고 있는데 그 입장을 바꾸어 고칠 수 없음을 지적하였고, 자손 된 자가 마땅히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거역하지 못할 것이라 하여 최재현의 거짓된 의견을 물리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앞서 대원군의 처분이 선조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기에 충분할 것이며, 최재현은 스스로 깨달아 망령되어 행동하지 않음이 이치에 맞다는 처분을 내렸다.

1874년 8월 14일 대구 판관이 순찰사에게 올리는 보고서에서 최재현이 이전의 판결에 대하여 항변하며 올렸던 탄원서의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본부 해동촌에 사는 최재현이 탄원서를 올린 때에, 해당 사람이 종파를 잃어버렸다는 실정에 대하여 각하의 판결이 의리가 엄정하여 못을 끊고 쇠를 자르는 듯 넘을 수 없음과 같지만, 본부에 당도함은 앞 번 판결에서 이 송사는 이미 여러 번 판결을 거쳤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것을 갑자기 언뜻 바로잡을 일이 아니라고 하시니, 이미 여러 번 거쳤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갑자기 언뜻 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가 무슨 집행하시는 바입니까? 또 물러나 너의 종중 사람들과 더불어 순리대로 강구하여 확실히 하라고 하셨는데, 저의 가문의 친족들이 온전히 시교의 부유함을 긴 강대한 세력에 붙었고 또 시교의 밥을 권하고 술을 권함에 매수되어, 이 사람과 더불어는 말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았음이 이미 4년이 되었으니, 해당 판관 또한 상세히 듣고 자세히 밝혔지만 이 판결을 내린 것은 곧 여름 곤충으로 하여

금 얼음을 말하게 함이요, 제나라를 버리고 초나라를 구함이었습니다. 이를 미루어 그것을 본즉 해당 판관이 물러나 맡긴 의향을 분명히 가히 생각할 수 있고, 시교의 세력이 미친 바도 또한 가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 판리가 되어서 백성들의 송사를 판결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크게 손상되고, 종파를 이으면서 제사 받들을 얻지 못한다면 몇몇한 인륜이 손상되니, 어찌 오래 한숨 쉬며 길게 한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후략)¹⁸⁾

위의 내용에 따르면 최재현은 이전에 상서를 두 차례 이상 올렸던 것으로 보이며, 자신은 본 판결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판관은 순찰사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해당 판관이 물러나서 맡기는 의향이 분명함을 가히 생각할 수 있고, 시교의 세력이 미친 바도 또한 가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판리가 되어서 백성들의 송사를 판결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크게 손상되며”라고 운운한 것은, 분명히 그 고을 수령이 사사로움을 끼고 돕고 억누르며 배척한다고 여긴 듯하니, 살피건대 백성의 습속으로써 어찌 이와 같음을 용납하겠습니까? 법의 기강이 있는 바에 거둬 내 버려둘 수 없는 바로써 사유를 보고하므로, 안찰사께서 참고하고 헤아려 처분하여 행하시도록 합당히 보고서를 올리며, 앞드려 빌건대 비추어 증명하고 시행하여 모름지기 보고 내용에 부응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후략)¹⁹⁾

사흘 뒤인 8월 17일 판관의 보고서에는 순찰사의 회답 내용으로 “다 잘 알겠거니와, 이른바 가문의 종파와 지파의 구별은 스스로 공공의 의

18) 「1874年 大丘判官 巡察使 牒呈」, “本府解東村居崔載鉉呈議送內節該生之失宗原情閣下題教義理嚴正如斬釘載鉉之不可踰越而到付本府則前題曰此訟已屢經卞決矣今則曰此非猝乍歸正之事云既曰屢經而反曰猝乍者此何所執也又曰退與汝矣宗中人純理講確云生之閣門諸族全付時教之挾富豪勢且賣於時教之諭飯呼酒與生不言不托已爲四載矣官亦詳聞稔燭而下此題音者便使夏虫之語米也置齊而求楚也推此觀之則本官退託意向昭然可想時教之勢力所到亦可想得矣噫爲官而不決民訟則政教大損系宗而不得奉祀則彝倫敦喪豈非長吁而永歎者乎幸今”

19) 「1874年 大丘判官 牒呈」, “本官退託意向昭然可想時教勢力所到亦可想得矣噫爲官而不決民訟則政教大損云云顯斥其官長於挾私扶抑者然揆以民習寧容若是法綱昭在不可仍置是乎等以軟由牒報爲去乎”

론이 있고, 또 시교 집안의 문적이 분명하거늘, 재현이 6-7세대 이후에 빼앗고자 함은 그 소행을 궁구하건대 천만 놀랍고 악하며, 원 소송장 가운데의 말이 혹은 고을 수령의 죄상까지 언급함이 있어 불가불 한번 엄하게 징벌하여서 일벌백계의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최재현의 탄원서를 가지고 별도로 차사를 정하여 압송할 일이고, 이에 최씨 집안의 유고는 해당 백성에게 환송하여 내어줄 것”²⁰⁾이라 밝히며 3년에 걸친 소송이 최재현의 유배를 통해 마무리되었다.²¹⁾



<그림 6> 1874年 大丘 判官 林이 巡察使에 올린 牒呈

20) 「1874年 巡察使 牒呈」, “知委是遣果所謂人家宗支之別自有公議是遣且時教家之文蹟昭然是去乙載鉉之欲奪於六七之後究厥所爲萬萬駭惡是遣原狀語恐有侵及官長此罪狀不可不一番嚴懲以爲之地而崔載鉉持是遣別差使捉上事”

21) 최재현의 유배 사실은 1892년 5월 경상도 관찰사가 발급한 關文에 기재된 최성규의 발언 중 ‘갑술년 시교의 무고하는 바를 입어 끝내 자신의 부친이 형벌을 받고 유배를 갔다(甲戌矣身之父被時教之所誣竟爲刑配)’는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IV. 3대에 걸쳐 지속되는 소송전

1. 1876-1893년 2차 종손권 분쟁

1876년 10월의 어느 날 최왕을 필두로 한 최씨 일가는 일족인 최성규가 종사를 빼앗으려 하니 경사에 질문하여 단언을 내려달라는 소지를 성주에게 올렸다. 또한 한 달 뒤 최원술, 최두혁, 최명린 등이 성주에게 올린 소지에서는 사당에 제사를 지내는 날인데 최성규가 불쑥 나타나 종주에게 행패를 부렸으니 향당에 존모하는 자리를 더럽힌 죄를 다스려 달라며 호소하였다. 그날의 일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밝히고 있다.

동틀 무렵에 이르러 종당에 모여 선조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거둔 후 제삿밥을 아직 먹기 전인데, 친족 사람 성규가 돌입하여 몇 마디 말도 하지 않고서 종손을 붙잡고 머리카락을 어지럽게 풀어헤치니, 저희들이 만류하여서 그것을 중지시키며 도리에 의거하여 그를 책망하며 말하기를 “이는 이에 우리 집안이 성씨를 얻은 이래로 있는 적 없는 변고이다. 하물며 이 집은 비단 우리 한집안의 종당일 뿐만이 아니라 이에 한 도의 유림들의 종당이라, 백불옹의 좌우명인 공경의 현판이 빛나게 위에 걸려 있는즉, 이 집을 출입하는 자는 마땅히 예의가 가지런하여 명문가의 유품을 손실하지 않아야 하건만, 니가 어찌 감히 이와 같이 난동을 부려 이에 오히려 시정잡배 무뢰배만 못함인가. 하물며 제삿밥을 먹는다는 것은 제사의 나머지요 제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인데 이가 무슨 해괴한 행동인가. 또 하물며 종손이 너보다 연장자요, 숙부의 향렬이요, 10대 동안 제사를 받은 종손이건만, 니가 어찌 감히 이와 같은가. 너의 행태와 같음을 상정하여 종친들을 모아 질책을 다 하겠다” 한즉, 저이가 도리어 방자히 패륜적으로 말하며 사과의 뜻이 만무하였고, 소매에 지녔던 한 장의 종이를 꺼내어 그것을 종당 가운데 던지고는 성난 듯 떠났습시다. (후략)²²⁾

22) 「1876年 崔元述 所志」, “城主閣下伏以民莠皆師溥公之後孫也至日質明會于宗堂薦禋祖廟既徹未餽族人性奎入不數語扶執宗主亂披頭髮民莠挽以止之搥理而責實之曰此乃吾家得姓以來所未有之變怪也況是堂也但吾一家之宗池乃一道儒林之宗而百弗翁敬牌煌煌在上則凡出入是堂者合宜威儀井井不失故家遺範汝何敢若是跳浪乃反市井無賴之不若也況飯者祭之餘祭禮未畢此何駿舉且況宗主於汝年長也叔行也十代奉祀之宗主也

위의 소지는 관인이나 성주의 처분이 기록되지 않아 관부에 제출한 문서가 아닌 초본인 것으로 보인다. 1880년 8월 백불암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거듭 올린 소지에서도 성주의 처분을 볼 수 없는데, 최성규의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지난 4년 동안의 소송전은 판결이 최성규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서가 1890년 8월 백불암가에서 최성규의 탈종을 바로잡아 달라며 올린 소지인데, 성주가 처분을 내리며 “제출한 소지를 한 번씩 볼 때마다 부끄러운 일이다”²³⁾라고 회답한 것이다. 이는 1876년부터 지속된 소송전에서 관부가 최성규 손을 들어주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백불암가에서 발급한 소지에서 성주의 처분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백불암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공문서를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최성규가 말을 들어 굳이 공식적으로 소지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나 10여 년이 지난 뒤 최성규의 행패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1887년 3월의 최명린, 최명희, 최문발이 성주에게 올린 소지를 보면, 사당에 있는 신주를 최성규가 자신의 집으로 옮겨 가 사갓집에서 모시는 해괴한 일이 생겼으니 처분을 바란다고 하였다.(부록: 연번28) 최성규의 이러한 행태는 이전의 소송전에서 최성규가 패소한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 소송의 판결은 1930년대에 일어난 최성규의 아들 최장과 백불암가 사이의 토지소송 중 발급된 증빙용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최성규가 1887년 3월 당시 올린 소지의 내용과 그에 대한 성주의 처분이 최성규의 손을 들어주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최성규는 자신이 종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성주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동생의 아들로서 형의 아들로 삼는 것이 진실로 정통이며, 종손으로서 지류로 삼는 것은 실로 이것이 인륜을 어지럽힘이다. 차남의 차남으로서 장남의 장남으로

汝何敢若是也妃如汝罔狀斷當合宗致責云矣則彼反肆然悖說萬無謝過之意袖出一狀紙投之堂中倖倖然去矣”

23) 「1890年 崔命熹 外 2人 所志」, “看一番呈訴看一番羞恥向事”

삼았다면 종파가 이미 세워진 것이며 지파가 저절로 분명하다. 차남으로서 장남으로 삼은 것은 다만 신주를 옮겨야 하는 슬픈 감정에 관계된 것이요, 이 한 조각 옛날 종이의 유서에 불과하다. 차손으로서 장손의 정통으로 삼는 것이 진실로 이가 천만 올바른 입안이요 큰 의리인데, 그간에 과연 잔악한 자손들이 영락하게 되어 마침내 둘째나 막내들의 능멸하는 바가 되었으니, 그 동생이 되어서 뒷자리에 있는 것이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으며, 그 형이 되어서 아랫자리에 있는 것은 억울함이 응당하리라.(후략)²⁴⁾

이처럼 선대에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이 다시 제기되어 형세가 급변한 배경에는 18세기 초 그들의 선조가 겪었던 소송전처럼 집권 노론 세력의 향촌 남인에 대한 통제의 의도가 작용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1875년 7월 대구 관관으로 임명된 김유현의 본관은 광산 김씨로, 조선 조 문묘에 종사된 ‘현인 18인’ 중 김장생, 김집 부자를 배출한 명문가이며, 영조 대까지 노론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배출한 집안이었다. 1877년 12월에는 조면하가 대구 관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조면하의 본관인 풍양 조씨 또한 숙종 대 이후 대표적 노론의 세도 가문으로 유명하다. 1892년 5월 경상도 관찰사가 내린 關文의 내용 중 “지난 정해년(1887) 본부 판관 이성렬이 그 실상을 밝게 구명하였다”²⁵⁾는 최성규의 발언을 통해 1887년의 소송에서 최성규의 손을 들어준 판관이 이성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성렬의 본관은 예안 이씨로 충남 아산의 외암마을 출신으로 보이는데, 외암 이간은 노론의 대유학자로 유명하여 이성렬 역시 노론의 당색을 지녔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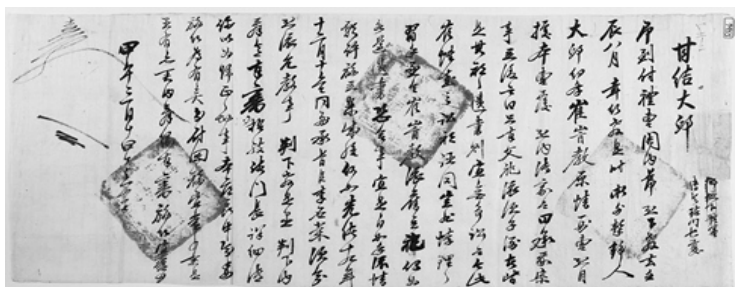
그러나 단순히 집권세력이 남인을 포섭하고 통제하려는 간접적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19세기 말의 상황에서는 잘못된 시각에 가깝다. 1755년 을해옥사 이후 소론은 정치적으로 몰락하였고, 18-19세기 집권

24) 「1935年 辯護士 訴訟證據」, “以弟子而爲兄子者固是正統以宗孫而爲支流者實是亂倫以次子之次子爲長子之長子宗統已立支流自明以次子爲長子■只關移情不過是一片古繼遺訓以次孫爲長孫統眞箇萬正案大義問果作弱子殘孫之零■畢竟爲■季■之凌轢爲其弟而居上位心豈安■爲其兄而處下位冤應■矣”

25) 「1892年 觀察使 關文」, “去丁亥本府判官李聖烈明察其實”

노론 내부에서는 사상, 정치적 노선에 따라 분화가 있었다. 게다가 19세기 중엽에는 개항과 주변 제국주의 국가의 간섭이라는 새로운 대외적 상황과 집권 세력 내부에서 전통 지식에서 탈피한 개화파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개항 이후의 19세기 말은 전통시대의 질서, 지배체제가 급격히 와해되고 새로운 문물, 신흥 계층의 형성이 있었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아울러 일제강점기까지 이러한 분쟁이 이어졌다는 점은 정치적 시각보다는 문중내의 기득권과 이권을 두고 발생한 것에 더욱 가까울 것이다.

1890년 최성규는 선대에서 세워놓은 선조의 행적을 기록한 유허비의 훼손을 시도하는 등 분란을 지속하였으나,(부록: 연번31, 32) 1893년 관부가 최시교의 손을 들어주며 17년에 걸친 소송전이 마무리되었다.(부록: 연번41, 42) 1893년 동부승지 이석영은 관문을 통해 대구 유학 최시교의 원정을 보니 선조의 종사를 받들고 있었는데 최성규의 송사가 선조를 속이고 있으니 선조의 유서를 따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先朝에 이미 결정이 된 것을 지금에 와서 최재현이 송사를 만들어 다투고 선조를 기만하니 최시교로 하여금 전과 같이 主祀하고 그 선조의 유서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내용의 입안을 확인할 수 있다. 1894년 3월 대구부에서 최시교에게 내린 감결에서는 최성규가 거짓으로 문서를 만들어 최시교가 종손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였으나, 선조가 남긴 유언이 명백하기 때문에 최시교가 종손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부록: 연번9)



<그림 7> 1894년 大邱府에서 崔崙敎에게 내린 甘結

최시교와 최성규의 종손권을 두고 벌인 소송전이 일단락되고 최시교는 이미 세상을 떠났음에도 1910년대와 1920년대의 문서에서 최성규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부록: 연번1-4) 1916년 12월 21일 최성규는 비석의 각자를 새로 하는 문제로 보본재에서 당회를 하고자 하니 참석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간찰을 발급하였는데, 비석은 선대의 유허비를 말하며 보본재는 칠계에 위치한 백불암가의 재실이였다. 또한 간찰의 수신인은 蔡生員이였다. 채생원이 선대의 송사와 관계된 근처 마을에 살던 채담령가의 후손이라면 본 갈등에 노론 세력의 간섭이 있었다는 심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시간이 흘러 조선왕조의 폐망으로 당파가 무의미하였을지라도 채생원은 향촌 사회에서 최성규를 지지해줄 세력 중 하나였을 것이다. 1917년 1월 6일 최성규가 채생원에게 보낸 간찰에서는 아쉬움과 한탄을 표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보본재에서의 당회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1918년 9월 9일 최성규가 보낸 간찰에서는 족보의 편찬과 관련된 일을 논하기도 하였다.

최두영의 부친인 최종진은 조부인 최시교보다 2년 일찍 사망하였기 때문에 본 분쟁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1923년 11월 13일 최성규가 최두영에게 보낸 간찰 1건이 있는데, 藏洞의 한 구역을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수호한 지 수백 년인데 연명하여 글을 보낸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며, 두영은 종사를 위하고 나는 이산을 지키는 것이 책임이니 그렇게 알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전하였다.(부록: 연번4) 최두영을 백불암가의 종손으로 인정하는 반면 토지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최성규의 아들인 최장과 백불암가 종중이 종산을 두고 1935년부터 2년간 벌인 소송의 전초전이 최성규 대에 이미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1935-1937년 토지분쟁

1937년 6월 10일 공산경찰관주재소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달성군 해안면 연천동에 거주하는 최장이 1937년 4월 9일과 본월 10일의

양일간 고소인의 주택에 침입하여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의 진행이 어렵게 되었으니 이와 고소인 사이에 취조하여 잘 처분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부록: 연번75) 고소인은 하삭불이라는 사람으로 최장이 소유한 달성군 공산면 도학동 소재의 답 8.5두락과 전 9두락을 1929년부터 소작해왔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하삭불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음력 4월 9일 최장은 자신의 대소 가족과 고용인을 고소인이 소작하던 곳으로 데려와 모내기를 하였는데, 고소인이 최장에게 관청의 명령대로 본 소작인이 옮겨 심어야 할 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자 최장은 본인 소유 토지에 마음대로 하는데 법령이 무슨 상관이나며 그 자리에서 때려죽인다고 말한 것과 더불어 심한 폭행을 가하였다. 이튿날 최장은 가족들을 데리고 거둑 고소인의 주택에 침입하여 하삭불의 머느리 방에서 도구들을 밖으로 꺼내고 못자리를 설치하는 등 소작인의 업무에 방해를 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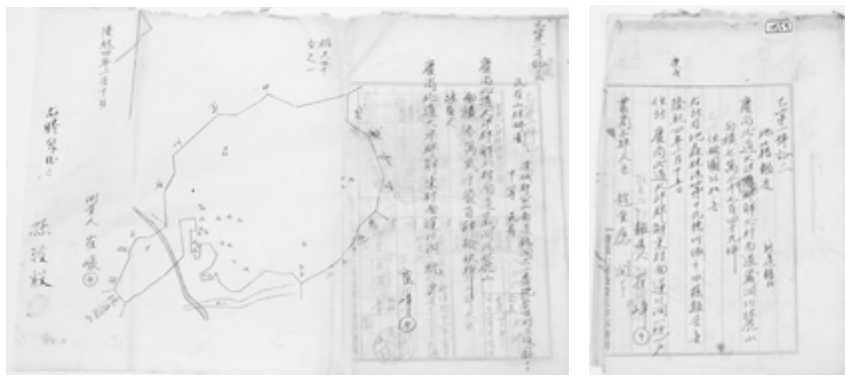


<그림 8> 1937年 河朔不의 告訴狀

본 사건 이후의 경과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소란이 발생한 배경에는 1935년부터 2년간 최장과 백불암가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의 재판 결과가 관련이 있다. 하삭불이 소작하던 달성군 공산면 도학동은

입향조 최동집의 부인 여강 이씨의 묘와 백불암 최홍원의 모친 함안 조씨의 묘가 있는 곳이었다. 또한 최홍원의 요절한 백부인 최인석의 묘가 여강 이씨의 묘 바로 아래에 위치함에 따라 최장의 선대에서부터 이곳의 관리를 대대로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최장의 부친인 최성규가 앞서 최두영에게 보낸 간찰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장동이라고 밝혔는데, 장동은 도장동을 말하여 이는 도학동에 속하는 구역으로 이 일대가 초려공 최홍점으로부터 그 후손들로 이어져 내려온 세거지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종손권을 두고 수십 년간 지속된 다툼은 백불암가와 초려공 후손들이 전처럼 화합하여 지내는 것을 불가능케 하였다. 도학동 일대의 토지는 이들이 공동으로 모시는 조상의 묘가 소재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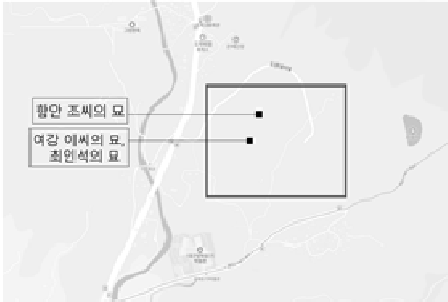
1935년 이 땅의 소유권을 두고 백불암가의 종중대표였던 최종직과 최장 사이의 소송전이 시작되었다. 최종직은 산지가 피고 최장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명의신탁이므로 종산으로 돌려달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부록: 연번63-65) 원고의 대리인은 변호사 이우익이며, 피고의 대리인은 변호사 손치은이었다. 이우익은 대구복심법원 판사를 거쳐 일제로부터 해방 후 제3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였다. 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며 소송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판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별지의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1935년 4월 29일부로 신탁계약 해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수속을 이행하도록 명령하였다.(부록: 연번66) 최종직은 항변하여 대리인을 통해 원판결을 취소함과 동시에 소송의 비용 또한 피고에게 부담할 것을 토로하였고, 피고 대리인은 기각의 판결을 요청하였다.(부록: 연번 87, 88) 1936년 2월 8일 법원은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부록: 연번70)



〈그림 9〉 崔嶂이 農商工部大臣 趙重應에게 면적 7만 평의 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거로 제출한 문서

1936년 8월 백불암가는 사부공과중중에서 경주최씨중중으로 원고를 변경하여 재차 소송을 제기하였다.(부록: 연번72) 1936년 8월 21일 변호사 이우영은 최두영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에 벌어진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동봉한 서류를 꼭 열람하시고, 성패 여부는 중중에 달려 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하였다.(부록: 연번7) 8월 25일 중중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대리인이 한규용으로 바뀌었고, 신탁이란 글자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명의 신탁한 것이 틀림없으며 최장에게 토지를 방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부록: 연번71) 최장은 토지가 자신의 소유이지 중중의 소유가 아니라는 내용의 소명을 올렸고, 결국 재판의 결과는 최장의 손을 들어주었다.(부록: 연번73) 재판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하였으나, 백불암가 중중은 이듬해 본 토지에 소작 중이던 산지기 하삭불의 이름으로 재차 도학동 토지의 소유권 소송을 걸었으나 이 또한 패소하여 1937년 4월 16일 하삭불에게 벌금 20원에 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부록: 연번74) 조선조 말기에 시작된 67년간 3대에 걸쳐 지속된 분쟁이 이로써 끝이 났다.²⁶⁾

26) 필자가 백불암가 최진돈 중손을 통해 본 토지소송 이후의 경과를 확인한 결과, 백불암가 중중이 현재로부터 20여 년 전 여강 이씨와 함안 조씨의 묘가 속해있는 1만여



<그림 11> 도학동 분쟁 지역 일대의 현재 지도²⁷⁾



<그림 10> 최동집 부인 여강 이씨의 묘

V. 맺음말

조선조 말기-일제강점기의 67년에 걸쳐 백불암가에 일어난 분쟁은 최시교와 최재현의 5대조에서 갈라진 종파와 지파 간에 종손권을 두고 시작된 것으로 이후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진다. 이들의 7대조인 최수학의 유언에 따라 요절한 장남을 대신하여 차남인 최정석이 승종하였다. 최정석의 장남인 최홍원은 자연히 종사를 이었으나 최수학의 또 다른 유언에 따라 최홍원의 동생인 최홍점을 후사가 없이 죽은 장남의 양자로 들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최홍점의 후손인 최재현은 자신의 집안이 딸이의 제사를 지냈왔기 때문에 자신이 종손이라며 소란을 일으켰고, 1871년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전은 최홍원의 주손인 최시교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되었다.

최재현의 아들 최성규는 최시교에게 종손권 소송을 거듭 제기하여 승리하게 된다. 이처럼 선대에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이 다시 제기되어 종손권을 탈취한 배경에는 집권 노론 세력의 향촌 남인에 대한 통제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시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관은

평의 토지를 다시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7) 네이버 지도 [map.naver.com] 이미지 편집.

모두 노론·소론이었고, 영남 남인의 내부 분쟁을 이용하여 회유하고 통제하는 행태는 노론의 영수였던 민진원의 영남 남인의 노론화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최성규가 대구지역 노론 인사로 짐작되는 채생원과 소통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한다. 한편 19세기 말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온전히 정치적 관점에서 원인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문중내의 기득권과 이권을 두고 발생한 것이라는 추론이 적절하다. 결과적으로 1893년 관부는 다시 최시교의 손을 들어주며 17년에 걸쳐 지속된 2차 종손권 분쟁이 끝이 났다.

종손권을 두고 수십 년간 지속된 다툼으로 인해 백불암가와 초려공 후손들이 전처럼 화합하여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는 같은 선조의 묘를 모셔놓은 종산의 토지 소유권 분쟁을 야기하였다. 1935년 최성규의 아들인 최장은 입향조 최동집의 부인인 여강 이씨와 백불암 최흥원의 모친인 함안 조씨,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양자로 들어가 모신 최인석의 묘가 있던 달성군 공산면 도학동의 면적 7만여 평의 산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백불암가와 소송전을 시작하였고, 2년 후 법원은 최장의 손을 들어주며 67년간의 3대에 걸친 분쟁이 막을 내린다.

조선 후기 대구지역에서 대암공의 종손이라는 위상은 가문에서는 물론 향촌사회에서 경제적·문화적·상징적으로 매우 높았다. 백불암가는 최흥원과 최효술이 학문을 완성하여 영남 퇴계학맥의 주류가 되었고, 집안의 재산권이 종손에게 집중됨과 동시에 종중의 의결 권한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오랜 시간 지속된 종지 간의 종손권 다툼은 소송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종산을 두고 또다시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조선조 명문가의 종손권에 대한 알력 다툼은 몇몇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본 사례는 수백 년간 온전히 유지되어 온 종사에 대하여 느닷없이 종지 간에 분란이 발생한 것으로 매우 희귀한 현상이다. 이 분쟁을 통해 향촌 사회의 향문을 주도하던 유력가문에서 친족 간에 일어난 분쟁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집권 정치 세력이 향촌의 남인을 포섭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19세기말-20세기초 대구 대암가 후손의 종손권 분쟁에 대한 고찰(최기척)

※ 이 논문은 2024년 05월 24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5월 27일부터 0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학술논문>

- 김경숙, 「조선후기 山訟과 上言·擊錚 -盧尙樞家와 朴春魯家の 소송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33, 한국고문서학회, 2008, 253~280쪽.
- 김동일, 「1713년 대구부 해동촌면 상송과 갈등의 연쇄: 옷골 경주 최씨 백불암 고문서의 미시사적 접근」, 『동방학지』 19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0, 119~145쪽.
- 김동일, 「조선후기 토지 공증체계와 사송문서 연구 -18세기 전반 대구 경주 최씨의 전답송 분석-」, 『역사와 현실』 122, 한국역사연구회, 2021, 209~238쪽.
- 남기현, 「일제시기 토지소유권 확립을 둘러싼 사법적 분쟁의 해서 -김성윤과 도요타 후쿠타로의 소송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22, 한국역사연구회, 2021, 365~413쪽.
- 정공식, 「문성공 율곡 이이의 종손권 분쟁에 대한 고찰 -(조산)고등법원 1921.5.20. 선고 대정10년 민상제5호 및 1922.6.20. 선고 대정11년민상제184호 판결을 대상으로-」, 『法史學研究』 64, 한국법사학회, 2021, 43~92쪽.
- 정진영, 「부자들의 빈곤2-18세기 중반 영남 한 향촌 양반지주가의 경제생활」, 『대구사학』 129, 대구사학회, 2017, 269~308쪽.
- 최기척, 「백불암 종가 소장 주요 기록물의 서지적 분석: 백불암 최흥원 활동시기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허원영, 「한말 한 종가의 입후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들」, 『사회와 역사』 75, 한국사회사학회, 2007, 151~186쪽.

<단행본>

- 김광언, 『百弗古宅』, 민속원, 2008.
- 김택규, 『옷골: 거대도시 속의 씨족마을』, 대구광역시, 1996
- 최언돈·최기창·최용원, 『옷골의 인물과 유적』, (주)아이애펜 2013

19세기말-20세기초 대구 대암가 후손의 종손권 분쟁에 대한 고찰(최기척)

<웹사이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Abstract

A Study on The Dispute over The Right of Eldest Grandson of Dae-am Clan in Daegu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Choi, Ki-cheok

Through micro-historical research methods, this study reconstructs the dispute over the right of eldest grandson and land dispute that occurred in the Baekbulam clan, Daegu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events. and An analysis was attempted by selecting 90 related documents from among the Baekbulam clan materials deposited at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There are 27 Soji, 16 Tongmun, 3 Cheobjeong, 2 Gwanmun and Ipan, 1 Gamgyeol, Gisa, Wanmun, Pummok and 36 other documents. In the case of other documents, they are all modern records related to land litigation issued after the 1910s, including lawsuit files, reports of trial, documentary proofs, and judgments. The Baekbulam family was an influential family in the Daegu area in the late Joseon Dynasty. Since Choi Dong-jip entered Chilgye in 1616, Baekbulam Choi Heung-won and Jiheon Choi Hyosul completed their studies and became the mainstream of Yeongnam Toegye academic genealogy.

Baekbulam Choi Heung-won's father, Choi Jeong-seok, inherited the head family's ancestral rites according to his father's will on behalf of his older brother who died without leaving a son. In addition, Baekbulam's younger brother, Choi Heung-jeom, was adopted as his deceased brother and held a ancestral rite. This incident became the

start of a dispute over the right of eldest grandson that arose between relatives 200 years later. Starting with an incident in which the descendants of the adopted son who performed a ancestral rite for the eldest son who died young and the descendants of the second son who inherited the head family fought over the right of eldest grandson, we can see how this led to a dispute over the ownership of the land where the tomb of the ancestor they jointly worship was located.

■ 부록: 분쟁 관련 문서 목록

연번	통칭	발급자	수급자	발급시기
1	簡札	崔性奎	蔡生員	1916年12月21日
2	簡札	崔性奎	蔡生員	1917年01月06日
3	簡札	崔性奎, 崔永煥	未詳	1918年09月09日
4	簡札	崔性奎[族末]	崔斗永[漆溪]	1923年11月13日
5	簡札	崔嶂	河朔不伊	1936年 1月
6	簡札	未詳	崔嶂	1936년 1月 11日
7	簡札	松東法律事務所	崔斗永	1936年08月21日
8	簡札	崔生員[漆溪]	未詳	未詳
9	甘結	[大邱府]	崔岄教	1894年 3月
10	關文	慶尙道 觀察使	未詳	1892年5月
11	關文	李石榮[同副承旨, 臣]	崔生員[漆溪]	1893年 12月 16日
12	記事	崔生員	未詳	未詳
13	所志	崔岄教	城主	1871年 9月
14	所志	崔[̇ + 寬], 崔元述, 崔汪 等	巡察使	1872年 1月
15	所志	崔[̇ + 寬]. 崔元述 等 60餘人	城主	1872年 1月
16	所志	崔性奎	未詳	1872年4月19日
17	所志	崔岄教	[漢城府]	1872年4月8日
18	所志	崔是教	大院君 李昰應	1872年 9月
19	所志	崔汪 外 100餘人	城主	1872年 10月
20	所志	崔元述 外 90餘人	巡相	1872年 11月
21	所志	崔觀述, 崔岄教 等 60餘人	城主	1873年11月
22	所志	崔岄教	城主	1874年 6月
23	所志	崔岄教	城主	1874年 8月
24	所志	崔汪 外 100餘人	城主	1876年 10月
25	所志	崔元述, 崔斗赫, 崔命璘.	城主	1876年 11月
26	所志	崔性奎	城主	1887年 3月
27	所志	崔命熹 等	巡察使	1880年 8月
28	所志	崔命璘, 崔命熹, 崔文發.	城主	1887年3月
29	所志	崔命熹, 崔文發 外 85人	巡相	1890年 8月
30	所志	崔命熹, 崔文發, 崔誠述.	巡相	1890年 8月
31	所志	崔命熹, 崔文發, 崔誠述.	巡相	1890年 8月
32	所志	崔命熹, 崔文發, 崔誠述.	城主	1890年 9月

19세기말-20세기초 대구 대암가 후손의 종손권 분쟁에 대한 고찰(최기척)

연번	통칭	발급자	수급자	발급시기
33	所志	崔命應[漆洞]	城主	1892年 7月
34	所志	崔岄敎	巡相	1892年 7月
35	所志	崔岄敎	巡察使	1892年 8月
36	所志	未詳	崔生員	未詳
37	所志	未詳	崔生員	未詳
38	所志	崔岄敎	大邱府使	未詳
39	所志	崔生員[漆溪]	大邱府使	未詳
40	完文	孫致殷[辯護士]	訴訟者	未詳
41	立案	李石榮[同副承旨]	判書	1893年 12月 16日
42	立案	崔岄敎	政府	1893年 12月 16日
43	牒呈	未詳	未詳	1872年 1月 20日
44	牒呈	大邱判官 兼巡察使	崔生員	1874年 8月 14日
45	牒呈	[巡察使]	未詳	1874年 8月 17日
46	通文	崔汪, 崔[ㄱ+寬], 崔恒述 等	錦沙, 立石, 滄洞, 智妙 等	1871年 9月 29日
47	通文	鄭氏宗會[星州枝村]	大邱鄉校	1871年 10月
48	通文	大邱 儒林	漆溪 門中	1871年 11月
49	通文	吉民覺 外 60餘人[善山鄉中]	大邱鄉中 各宅	1871年 12月 20日
50	通文	具鼎魯 外 14人[大邱儒林]	崔氏門中	1872年 2月 22日
51	通文	密陽儒生	崔氏門中[漆溪]	1872年 5月
52	通文	山雲門中[義城李氏]	崔氏門中[漆溪]	1872年 5月
53	通文	永川鄉中	大邱鄉校	1872年 5月
54	通文	義城鄉會中	漆溪崔生員	1872年 5月
55	通文	金熙純 外25人[道洞書院]	大邱鄉校	1889年 2月 11日
56	通文	未詳	未詳	未詳
57	通文	未詳	未詳	未詳
58	通文	孫, 朴	未詳	未詳
59	通文	未詳	未詳	未詳
60	通文	崔○○[漆溪]	善山儒林	未詳
61	通文	崔○○[漆溪]	仁同 儒林	未詳
62	稟目	崔 汪 外 50餘人	未詳	1871年 9月
63	其他(近代 文書)	辯護士	法院	1935年

연번	통칭	발급자	수급자	발급시기
64	其他(近代文書)	辯護士	法院	1935年
65	其他(近代文書)	辯護士	大邱地方法院	1935年
66	其他(近代文書)	法院	原告 被告	1935年
67	其他(近代文書)	法律事務所	未詳	1936年
68	其他(近代文書)	法律事務所	未詳	1936年
69	其他(近代文書)	法律事務所	未詳	1936年
70	其他(近代文書)	裁判所 書記[朝鮮總督府]	未詳	1936年02月08日
71	其他(近代文書)	韓奎鏞[原告代理人]	高等法院 民事部	1936年08月25日
72	其他(近代文書)	慶州崔氏[原告 上告人]	高等法院 民事部	1936年08月25日
73	其他(近代文書)	裁判所書記	原告 被告	1937年
74	其他(近代文書)	大邱地方法院	河朔不伊	1937年04月16日
75	其他(近代文書)	河朔不	公山警察署	1937年06月10日
76	其他(近代文書)	辯護士	慶州崔氏 師傅公派	未詳
77	其他(近代文書)	辯護士	慶州崔氏 師傅公派	未詳
78	其他(近代文書)	辯護士	慶州崔氏 師傅公派	未詳
79	其他(近代文書)	辯護士	慶州崔氏 師傅公派	未詳
80	其他(近代文書)	辯護士	大邱地方法院	未詳
81	其他(近代文書)	崔生員	未詳	未詳
82	其他(近代文書)	崔生員[漆溪]	未詳	未詳
83	其他(近代文書)	崔生員[漆溪]	未詳	未詳
84	其他(近代文書)	師傅公派	未詳	未詳

19세기말-20세기초 대구 대암가 후손의 종손권 분쟁에 대한 고찰(최기척)

연번	통칭	발급자	수급자	발급시기
85	其他(近代文書)	辯護士	法院	未詳
86	其他(近代文書)	辯護士	法院	未詳
87	其他(近代文書)	師傅公派	未詳	未詳
88	其他(近代文書)	師傅公派	未詳	未詳
89	其他(近代文書)	崔 嶂	農商工部大臣	未詳
90	其他(近代文書)	辯護士	大邱法院	未詳

